

6월 둘째 주 순연합모임, 끝까지 인내하라, 사무엘상 22:1-23, 찬 459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놉 땅의 제사장 역시 다윗을 돕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수록 사울은 더욱 이성을 잃고 헛된 망상에 빠져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도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1-5, 20-23절).

(1)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1, 2절)?

*정답-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400명)가 다윗에게로 모였다.

<해설-(1)사울은 아마도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의 가문도 수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은 유다 땅에 거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이 머무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회·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빛진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2)다윗은 자신도 사울의 칼날을 피하며 다니는 고난중에 있지만, 어려운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2)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3-5절)?

*3~5절“(3)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5)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정답-(모압으로 가서)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고,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설명-(1)다윗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중에 먼저 연로한 부모의 신변 안전부터 챙겨야 했기에, 모압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할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증조모 룯'이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할 때조차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던 점이다(3절).

(2)그리고 드디어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가 전달되자 다윗은 지체 없이 일행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눔1**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한 적은 없는지?" 돌아 봅시다.

2.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칩니다(6-19절)

(1)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헤렛수풀)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6-8절)?

***정답-신하들이 자기말고 다윗 편을 들고 있다며 불안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설명-사울은 왕좌에는 앉아 있지만 역설적으로 쫓기며 불안해합니다.사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사울의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18~19절)?

*18절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고"

***정답-에돔 사람 '도엑'이었습니다.**

<설명-(1)'도엑'은 에돔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신분 상승에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중에 신분상승에 기회가 있습니다.(2)(삼상 21장을 보면)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장면을 보고, '도엑'은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해서 사울에게 반역을 꾀할 것처럼 말을 흘렸습니다.(3)결국 사울은 도엑의 헛된 충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그로 인해서 무고한 제사장 86명이 비극적으로 희생당했습니다. >

*** 나눔2**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이 권력과 만나면 폭력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 나눔3**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도엑 같은 간사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충언과 감언이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눠 봅시다.

***증보의 기도(마음 모아, 함께 기도)**

- (1) 망상에 사로잡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소서.
- (2)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3) 어려움에 처한 순원(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소서.